

# “고칠 것 많은 중앙종회”

김응철 교수 13대 활동 분석·해결책 제시해 눈길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포교 사회학과·사진)가 제13대 중앙종회 활동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해결점을 제시했다. 이 자료는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장립준비위원장 만좌)가 발간한 '대중공사 자료집'에 실렸다.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임분과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상임위 활동에 각종 여론 수렴과 연구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도 종단 정치의 산물이 아니라 특별한 사안이 있고 반드시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제한할 필요도 있다.

**#권한 분산·정책 결정 확대**  
중앙종회 권한이 총무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부여되고 있지만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원로의원 추천권,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호계위원 선출권 등 선출기능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대신 정책 결정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윤리장전·징계제도 필요**

서울 흥천사 토지 불법매매로 중앙종회의원의 도덕성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중앙종회의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연수와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중앙종회 내에 외부인사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정승가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의원 윤리장전을 제정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각급 단체들과 의사소통 모색**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종단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수반하는 종헌정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종회는 중앙총무기관, 각 교구본사, 신도회 및 단체, 일반 사회의 유관조직과 정기적인 간담회, 청문회, 토론회, 세미나, 연석회의 등과 같은 모임을 자주 개최해야 한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증원**  
종단 승가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도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활동력을 갖춘 스님들로 구성해 상징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책모임 연구모임으로**  
중앙종회 내 여러 정책모임이 제파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되기 보다 정책 산출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 중앙종회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회 사무처에 입법과정에 밝은 출·재가 인사로 전문위원제를 뒤 자문을 구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 ‘종정교시’ 2표차로 부결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사면 위한 종헌개정 못해...성문 스님 등 '사면' 동의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7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찬성 50표, 반대 18표, 무효 2표로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총 77명 중 3분의 2 이상인 52표가 넘어야 통과될 수 있었지만 2표가 모자랐다.

종정 법전 스님은 22일 발표한 교시를 통해 “종단은 화합 승가이니 과거 종단의 개혁불사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자들도 종단 발전에 회향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면, 경감 조치를 행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6일 임시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1994년 멸빈조치를 당한 자에게는 큰 잘못이 있지만 이제 벌써 13년이 지났

으므로 종단위신을 크게 손상시킨 자와 파렴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는 범위에서 종헌개정을 재검토했으나 이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29일 속개된 임시중앙종회에서 98년 해종행위 징계자에 대한 사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98년 징계자 중 ‘해종행위조 사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멸빈에서 공권징치 10년으로 경감된 성문, 현소, 원학, 정우, 월관, 남현 스님이 대상자다.

임시중앙종회에서는 또 영축총림 방장 지종 스님,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추대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법규위원회 화법(재적본사 봉선사, 성일(법주사), 법선(통도사), 지연(법어사), 정학(송광사), 성천(법주사) 스님이 선출됐으며, 재심(호계위원회)에 현봉 스님(송광사)이 선출됐다.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와 ‘불국사에서 위탁한 석가탑 내 발견유물 일괄반환을 위한 성명서’와 ‘신촌 봉원사 분장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11억3554만4천원이 증액된 183억3405만9천원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49억2829만6천원이 증액된 83억6006만원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시중앙종회는 올 부처님오신날 후 다시 여는 것을 전제로 29일 폐회했다.

남동우 기자

원용종 창종 30주년 국태민안 기원대법회



원용종(총무원장 성관)은 3월 26일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 대연회장에서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종 30주년 기념 및 국태민안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종사이운과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대법회에서 총무원장 성관 스님은 “창종 30주년을 계기로 종단 사찰들이 원용무에 사상을 널리 신앙해 지역불교 중흥의 기수로 모든 중생을 부처님 회상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종정 일공 스님은 법어에서 “원만해 마립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래서 세계는 원용일기이다. 원용무에서 사상을 바탕으로 새 시대 새 세상이 되도록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원용종 부총정 법신·천호, 종회의장 체의, 고문위원 신수, 일공문도회회장 평신, 비구니회장 성선, 국회정각회 부회장 안홍준 의원, 함흥전 前 국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승려교육장 개원 미륵종 창종기념법회도



태고종은 3월 29일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종단 유공선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혜초 스님이 유공선사 스님들의 영전에 헌화하는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 종단중흥 유공선사 추모다례제 봉행

태고종, 한암·묵담 등 140명 추모

태고종은 3월 29일 한국불교전통 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그동안 종단중흥에 앞장서 온 140여명의 유공선사 추모다례 및 전승관 봉헌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종정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회를 계기로 종단 발전이 기대된다”며 “종단스님들은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오로지 묵담대처하며 오직 한길로 용맹정

진에만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에 맞춰 역대 선조사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종단발전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장 이해봉 의원은 “불교는 그동안 국민국복에 앞장서왔다. 요즘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유공선사 스님들은 방한암, 한운, 송만암, 국묵담, 박대륜, 관상노, 김법린, 박한영, 이지암, 최법술, 임석진, 안진호, 이능화, 정보성, 안택암 스님 등이다.

태고종은 선사 스님 선정의 범위를 승유배불로 꺼져가는 한국불교를 되살리고자 직·간접으로 헌신했으며, 해방이후 전통종단의 법통과 법맥을 지키는데 일조한 스님과 확고한 종단관으로 애정심을 발휘해 종단발전에 노력한 스님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한국불교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3월 28일 김해시 관음정사에서 제15회 창종기념 및 중앙승려교육장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승려교육장은 지난해 10월 착공해 연건평 200평 규모로 완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륵종 종정 연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원효종 총무원장 함운, 미륵종 교육원장 정업 스님과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 김해경찰서 백광술 서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마루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지사안내 경남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80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종교간 협력으로 평화를”

문시놀 신부 지관 스님 예방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사무차장 마차도 문시놀 신부가 3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과 마차도 문시놀 신부는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간 협력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남동우 기자



# 大韓佛教曹洞宗主催 第8代 總務院長 大隱堂 德牛禪師 就任 大法會

- 證 明
1. 宗正: 尹智明 德瓚 大禪師
  2. 中國佛教協會副會長兼曹洞宗發願地 洞山菩提禪寺 住持: 釋純一大禪師
  3. 僧正院長: 韓春潭 德春 禪師

顧問: 德昊(副宗正) 德俊, 德光, 德岬, 德周, 德一, 德炯, 慧空(以上 本宗團 僧正 7분)

指道委員: 德蓮, 德雲, 德山, 慧泉, 行文, 行滿, 海日, 行照, 德岩, 德潤, 德熊, 慧光

## 就任準備現長委員

- 總務分科: 嚴法華 總務部長
- 儀典分科: 李慧山 監察部長
- 護法分科: 趙行修 糾正部長
- 文化分科: 金能一 文化部長
- 財務分科: 李法蓮 財務部長
- 社會分科: 金行法 社會部長

就任式進行: 金法空(清心素喜門道會長)  
집전: 張顯空(教務部長)

## 就任準備 副委員長 (全國 12個 教區宗務院長)

- 서울教區 宗務院長: 金德龍
- 大邱教區 宗務院長: 朴慧法
- 京畿教區 宗務院長: 李一覺
- 永南教區 宗務院長: 權清潭
- 江原教區 宗務院長: 孫慧覺
- 慶南中部教區 宗務院長: 梁海日
- 永東教區 宗務院長: 安慧光
- 慶南西部教區 宗務院長: 黃法光
- 忠北教區 宗務院長: 釋慧惺
- 釜山教區 宗務院長: 鄭德正
- 慶北教區 宗務院長: 朴雲鶴
- 南海教區 宗務院長: 車行悟

◆ 일시: 불기 2551(서기2007)년 4월 9일 12시 ◆ 장소: 하림각 ◆ 문의: (02)2091-0408 / 팩스 02)951-0480

大韓佛教曹洞宗 第 8代 總務院長 就任準備委員會 就任準備委員長 金統元(行元)·奉行委員長 宋德性(行性) 합장